

## 이 땅의 농업·농촌·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영원히 건재하여야 합니다.

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

우리들은 지난 48년간 농업의 기술혁명, 농촌의 생활혁명, 농민의 정신혁명을 외치면서 다짐하고,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습니다.

우리 협회는 이 땅의 농업·농촌·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모임입니다. 농민 중에서도 선도농가라 자부하는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.

우리들은 48년간 이 땅의 농업·농촌발전과 농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도록 기초를 닦았습니다.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도 좋겠습니다. 자랑스러운 삶은 살았기에 직면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.

이 땅의 농업·농촌 이대로는 존속이 불가능합니다.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. 도·농상생과 공존, 이를 뒷받침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도시와 농촌의 활발한 교류로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구매, 살고 싶은 농촌 가꾸기와 정주까지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우리 농촌의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 지난 7년간 우리 협회가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며 운동입니다. 농업·농촌의 영속과 함께 협회도 이러한 활동을 주축으로 영속되어야겠습니다.

지난 7년간 이 땅의 농업·농촌과 협회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강 춘 성 올림

